

문제점이 있어 91년 실시설계 시행에 이어 물양장 축조 400m에 39억원을 투자하여 9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92년에는 물양장 축조 50m에 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어선대피 수면적 확보를 위한 강구항 방파제 축조는 92년에 7억원을 투입 200m를 완공할 계획이며, 주문진항 방파제 150m완공에 5억원, 그리고 삼천포 구항의 어선피해 방지를 위해 방파제 500m에 70억원이 소요되는 방파제 축조를 위해 92년에 2억원과, 기 추진 중인 노후물양장 개축에 6억원을 계속 투자할 계획이다.

도동항은 항내 수면적이 협소하고 외해에 직접 노출되어 악천후시 모든 선박이 타항으로 대피하는 실정에 있어 91년 항만개발의 타당성여부 및 적정 입지 선정에 대한 조사용역에 이어 92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 群小港 개발 積極추진

해운항만청에서는 어민 소득증대와 도서민의 생활편의도모, 연안화물 수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군소항 개발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어항시설이 어민들의 생명

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뿐 아니라 어촌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써 그 기능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정부예산이 무역항 개발에 집중되어 등 시설에 대한 투자가 사실상 미흡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어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항만들에 대하여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함으로써 어민 생활근거지 보호 및 어획물 양륙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어항이 항만 투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어민 소득증대는 물론 낙후지역 균형개발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內 務 部

# 漁港기본施設 持續的으로 擴充 島嶼를 매력있는 定住圈化

金 燉 起 <內務部 特殊地域 擔當>

금년은 지역개발행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 해였다.

지난 3월의 기초의회 의원선거와 6월의 광역의회 의원선거를 통하여 30여년만에 지방자치체가 부활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체가 실시되지 않은 지난 30여년동안 우리 나라는 중앙정부 주도하에 눈부신 경제성장

을 이룩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의 효율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자원의 최적 배분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지역간·계층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고 사회 갈등 구조를 증폭시켜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도서지역의 경우 환해성(環海性), 협소성, 격절성(隔絶性) 등 도서지역만이 갖는 특수여건으로 그 경제·사회는 낙

후와 후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물론, 지난 86년 도서개발 촉진법이 제정되고 88년부터 도서종합개발 10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도서지역의 급수, 전기, 교통 등 기초생활 수요의 해결과 어항 기본시설 등 생산기반 조성에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였지만, 아직까지 도서지역은 육지부와 비교하여 소득과 생활조건 등 여러가지

면에서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84년말과 90년말을 비교하여 유인도서 수는 521개에서 497개로, 인구는 43만3,000여명에서 32만3,000여명으로 25.6%나 격감한 것을 보아도 개발 격차가 빚은 결과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국토의 균형 개발은 결국 국토개발과 관련한 사업과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어지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주체와 재원조달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지방자치체의 실시는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첫째,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역내의 관련단체나 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지역자체의 활력과 창의가 크게 증진될 것이다.

지역단위로 자립의식이 고조되고 개발결과에 대한 공동책임의식이 강화되어 개발과정에서의 주민의 협조가 순조롭게 이루어 질 것이다.

둘째, 인재의 지방정착기반이 형성됨으로써 지역발전의 잠재력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오지, 도서 등 낙후지역의 경우 지역의 발전을 주도해 나갈 창의적이고 활동적인 인재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체의 실시로 지방의 정치엘리트가 양성되고 산업·문화등 각 영역에 걸쳐 지역사회의 발전에 관한 제반 의사결정을 지역내에서 스스로 하게 됨에 따라 관련분야 인재의 지방정착을 유인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역개발역량을 재고시키는 데 큰 몫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셋째, 지역특색에 맞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어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지역실정을 소상하게 아는 지역주민에 의하여 개발이 주도됨으로써 보다 지역주민의 필요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중앙정부주도에 의한 획일적인 개발이 초래할 수 있는 투자의 비효율성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체실시가 갖는 지역개발에의 긍정적 요소는 그동안 중앙정부주도하의 효율성 위주의 국토개발정책에서 소외되어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잔존하게 된 도서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쳐 앞으로 도서개발을 촉진시키는 동인(動因)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에서도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할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기초를 지방의 집중육성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에 두고 있거니와, 특히 도서지역은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가치관과 욕구의 다양화 추세에 부응한 관광·휴양공간으로서, 그리고 해양자원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국제질서가 변화하는 상황속에서 주변해역을 포함한 해양자원개발장소로서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앞으로

의 개발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도서개발의 장래가 어느 때 보다도 밝게 펼쳐진 91년도의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과 92년도 사업계획을 개관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도서개발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91 島嶼綜合開發推進狀況과 92年 계획

도서개발은 1973년 부터 내무부에서 식수난 해소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오다가 1983년

부터 도서종합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1985년부터 상주인구 50명 이상의 333개 유인도서를 대상으로 모도(母島)중심의 권역별 거점개발방식을 통한 제2차 도서종합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던 중 국가적 차원의 도서개발 필요성의 대두에 따라 1986년말에 도서개발촉진법이 의원입법으로 제정되고, 이 법에 의하여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의 도서종합개발10개년계획이 성안되어 내무부 주관하에 8개 관계부처가 공동추진하

게 됨으로써 비로소 도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다.

도서종합개발10개년계획은 1986년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517개 유인도서중 상주인구10명미만의 도서와 제주도 본도 및 교량등으로 연륙된지 10년 이상이 되어 이미 기본적 생활 기반시설을 갖춘 도서를 제외한 449개 도서를 대상으로 계획기간중 총3,886억원을 투자하여 항구적 해결 및 소득과 문화복지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도서지역을 육지의 다른 지역과 격차없는 정주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한 개발전략은 ①지역단위 종합개발로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②모도중심의 생활권을 형성하여 자도의 격질감을 해소하며 ③ 도서별 특성개발로 도서의 자원화를 꾀하는 한편 ④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도서종합개발 4차년도인 91년에는 전국의 개발대상 449개 유인도서중 135개 도서를 대상으로 총675억원을 투자하여 급수·전기·교통등 생활기반시설 178건, 방파제·선착장·물양장·방조제등 생산기반시설 143건 그리고 진개처리장·하수도등 환경개선사업 20건등 총341건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부처별 추진사업내용과 투자상황을 살펴보면 주관부처인 내무부가 급수·전기·방조제

〈별표〉 '91 도서종합개발계획 부처별 추진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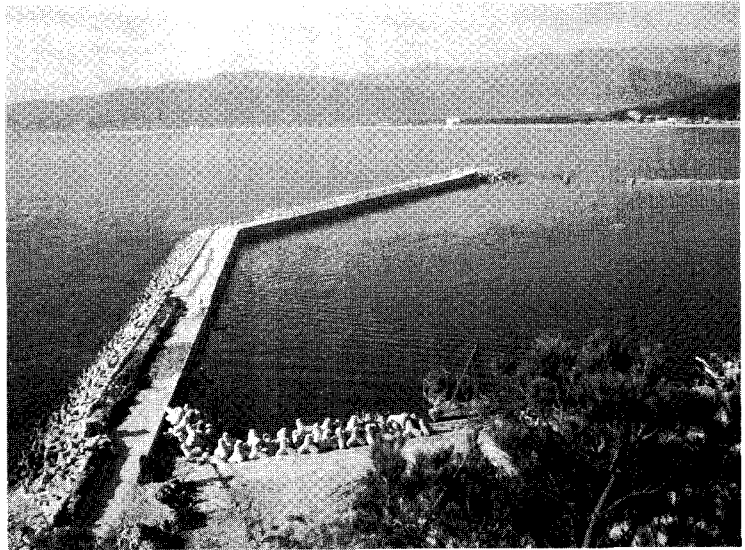
부 처 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 비	지방비	융 자
합	계	341건	67,503	52,671	12,477	2,355
내 무 부	소 계	259	22,491	15,820	6,671	
	급 수 시 설	34	2,881	2,148	733	
	전 기 시 설	3	59	41	18	
	도 로 시 설	98	9,161	6,786	2,375	
	도 선 건 조	2	201	141	60	
	소 규 모 어 항	94	8,713	6,459	2,254	
	방 소 제 등	6	360	245	115	
	지방지치단체사업	22	1,116		1,116	
건 설 부	소 계	10건	8,760	8,760		
	다도해특정지역개발	2	4,000	4,000		
	해상국립공원개발	8	4,760	4,760		
동력자원부	한 전 전 화 사업	18	8,733	3,124	3,254	2,355
보건사회부	보건진료소신축	10개소	300	200	100	
수 산 청	소 계	41건	24,091	21,639	2,452	
	3 종 어 항 개발	11	19,187	19,187		
	2 종 어 항 개발	30	4,904	2,452	2,452	
해양항만청	항 만 시 설 보 강	3개항	3,128	3,128		

등의 사업에 225억원(33%)을 투자하였고, 다도해특정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부가 88억원(13%), 한전전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동력자원부가 3억원(1%), 그리고 법정어항과 지정항만을 관리하고 있는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에서 272억원(40%)을 투자하였으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또한, 91년도에는 기와의 도서종합개발10개년희상 91년도 계획사업의 추진과 병행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정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는, 지난 88년부터 도서종합개발 10개년계획이 시행된 이후 4년간 추진과정에서 연차별계획으로 책정된 사업의 국고보조예산중 일부가 삭감되어 해당연도에 계획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사례가 누증되고, 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조사과정에서 보다 절실한 주민숙원사업이 누락된 경우도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92년부터 시행될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92~96)계획상 부분별 발전지표가 대폭 상향조정되어 이에 준거하여 개발지표를 설정한 도서종합개발10개년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 등으로 인한 것이다.

도서종합개발10개년계획중 수정계획은 92년이후 시행할 연차별 계획을 대상으로 전기·급수·도로·어항시설·농업용수등 부분별 개발지표를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에 상응하여 상향조정하고 이



외에 ①종합개발계획수립시 기초조사과정에서 누락된 주민숙원사업 ②소요사업비 미확보로 시행이 유보되어 있는 사업 ③지역여건, 물가상승 등으로 사업량 및 소요사업비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사업 ④다른 사업으로 이미 시행하였거나 지역여건의 변동등으로 시행이 불필요하게 된 사업 ⑤기타 새로운 개발수요의 발생으로 추가로 반영되어야 할 사업 등을 망라하여 전국의 449개 전 개발대상도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내무부소관사업의 경우 10개년간 투자규모가 당초계획의 2,494억원에서 3,473억원으로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도서개발촉진법상 종합개발계획 수정을 위한 필요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92도서개발사업은 현실에 맞게 추

진될 수 있도록 수정계획을 기준으로 국고지원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도서종합개발이 시작된 1988년부터 금년도까지의 추진상황은 그동안 총 2,016억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1,601건의 계획사업을 완료함으로써 1997년까지의 전체계획대비 45%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지난 4년동안의 추진성과는 도서지역의 생활여건 조성과 생산활동 및 문화복지수준의 향상에 직결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해결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의 정주의욕과 지역발전에 대한 참여욕구가 크게 높아진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과에 따라 92년도의 내무부소관사업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정계획에 기초하여 총254억원을 투자,

318건의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의 중점은 일부 미진한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보완투자와 함께 도서지역의 실질적인 정주공간화를 앞당길 수 있는 생산기반시설 및 소득과 문화복지사업에 대한 비중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한편, 91년도중 또 한가지 특기할 사항은 10.24부터 11.2까지 10박 11일간 시도·시군구의 도서개발업무담당공무원 12명을 일본에 파견하여 도서개발실태를 비교·연수토록 한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어 문화나 국민의식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많은 도서를 보유하고 있고, 이미 1952년에 離島진흥법을 제정하여 도서개발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도서개발선진국으로서 우리 연수단은 도서개발을 주관하고 있는 국토청을 비롯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도서개발 현장을 방문, 도서개발에 대한 우수사례와 선진개발기법을 폭넓게 습득하였으며 앞으로 우리나라 도서개발행정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앞으로의 島嶼開發 課題와 方向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도서개발실태를 요약하였지만, 도서지역은 지리적 특수성에서 파생된 여러가지 제약으로 그 경제·사회는 아직도 정체적 경

향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인구면에서 절대다수의 도서가 여전히 과소화경향에 있고, 생산과 생활면에서도 도서종합개발10개년계획의 추진으로 급수·전기·교통등 기본생활수요와 생산기반, 생활환경등이 어느정도 개선되었으나 전국적인 수준과 비교하여서는 아직도 그 격차가 현저하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도서지역을 둘러싼 국내외적인 여건과 환경은 앞으로의 도서개발의 전망을 매우 밝게 해 주고 있다.

도서개발의 기본적 과제는 변화하는 주변환경속에서 도서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생산과 소득을 높이고 문화와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도서지역을 자족적인 정주공간화함으로써 도서민의 정착과 유출된 도서민이 도서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 주는 일이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이 중요하다.

첫째, 각개 도서가 지닌 자연적 환경, 역사적 풍토, 지리적 위치, 토지와 자원등 제조건을 장기적 관점에서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도서의 자연적·지리적 조건은 제약조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동하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이와같은 입장에서 도서지역 주민의 취업기회 창출과 소득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도서특성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는 도서 자체의 정보수집체제의 확립과 필요한 생산기반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도서지역을 각종 제약조건 아래서도 건전하고 활력있는 생활이 영위되는 지역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도서지역에서도 누구나 육지부와 다름없는 교육·문화·의료·복지등의 향유가 가능한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도서주민 모두가 능력을 발휘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이는 도서민 모두가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이는 도서민 모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매력있는 경제사회라고 인식할 때 가능한 것이며 정주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도서개발이 지향해 나갈 정책과제와 추진방향을 살펴 보기로 한다.

## 기본생활수요의 지속적 해결

도서종합개발10개년계획의 추진으로 도서지역의 가장 큰 취약점인 급수·전기·교통등 기본생활수요의 해결이 빠른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나 육지부와 비교하여 아직도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

특히, 교통문제는 90년말 현재 여객선이 취항하지 않는 유인도서가 176개나 존재하고

여객선이 취항하는 도서라 할 지라도 매일 취항하는 도서는 291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결항률이 높아 도서지역의 隔絶性해소와 산업진흥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서개발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도서민의 기본적 생활수요의 조기해결에 최우선을 두어 지역개발역량을 집중투입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전국의 상수도 보급수준에 상응한 급수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수원발굴과 다목적 용수원시설의 확충 등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모든 유인도서가 전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전전기 인입가능도서에 대한 한전전기 공급사업을 조기완료하고, 여타도서의 자가발전시설 확대 설치 및 노후시설 교체,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기술·인력·재정적 지원대책도 아울러 강구·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서의 특수사정에 따른 제약조건을 개선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인 교통문제의 개선에 보다 역점을 두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여객선 미취항 도서에 대한 특별대책수립과 아울러 여객선 취항도서의 항로를 증편하여 도서지역의 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필요운항회수를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장차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항로에 대한 선박의 대형화·고속화와 경합항로

의 집약화, 운임의 적정화 등 항로여객선의 근대화화 및 수송력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도서에 선박의 상시 입·출항과 하역, 여객승강 등이 용이하도록 관련시설을 정비·보강하는 한편, 도서의 입지에 따른 연륙·연도사업과 도서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망의 확충도 적

남해안 일대에 산재한 많은 도서는 특유의 온난한 기후로 특성농업의 발굴·육성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도서지역에서의 농업은 중핵농가와 고능률적인 생산조직의 육성 등 기반정비와 아울러 축산·임업·과수 등과의 복합영농 촉진, 각개 도서의 특성에 맞는 작목의 도입과 수요동향에 부응한 탄력적인 품종 전환, 유통구조의 정비 등을 통



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산업진흥과 기반정비

도서지역의 산업은 제1차산업에 편중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농업과 수산업의 비중이 크다.

농업은 일반적으로 경영규모의 영세성, 중핵농가층의 취약, 취업인구의 고령화, 후계자 부족 등 어려운 여건하에 있는 반면, 농업이 주산업으로 안정된 지위를 갖고 있는 대형도서와

하여 토지이용 집적도를 높이고 수익성이 높은 경영으로 탈바꿈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수산업은 어항시설의 정비에 따른 어선어업의 발전과 양식어업의 확대 등에 따라 도서지역의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간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산단체조직의 취약과 주소비지에서 격리된 지리적 조건의 불리함

등으로 주어진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등 어업경영 전망이 불투명한 점이 많다.

그러므로 수산업은 어업생산의 신장과 도서주변 해역의 고도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어선어업 근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자원의 관리와 배양을 강화하여 해양생산력을 증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산업협동조합등 어민단체의 육성과 수산금융의 확충, 지역생산력 실태에 맞는 유통구조의 확립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관·냉장·수산가공시설등의 정비와 함께 어업진흥을 도모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방파제·물양장·어판장 등 어항기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도서지역에 있어서 제2차산업은 보잘 것이 없다.

이는 주로 도서지역이 갖고 있는 격절성, 고립성, 협소성 등 지리적 여건과 부존자원, 기술인력, 공업용수, 전력에너지 등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며 따라서 유리한 입지조건전에 있는 육지부와 동일한 수단으로는 경쟁할 수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전국적인 제2차산업의 기술고도화, 고가공포화, 생산물의 다양화 진전등으로 도서지역에서의 제2차산업 입지가능성도 다면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도서지역이 자체 경제역량을 키우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도서에 있는 부존자원의 효율

**정부에서도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기조를 지방의 집중육성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에 두고 있어, 국민관광·휴양공간으로서, 해양자원개발장소로서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앞으로의 개발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적 이용과 고부가치화에 역점을 두어 입지특성활용의 관점에서 적정규모의 산업을 육성하고 취업구조의 재편성등을 추진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서산업진흥에 있어 공급량에 제한이 있는 용수 확보를 위한 해저송수 또는 해수담수화시설 도입을 추진하고 풍력 및 조력발전등 다양한 방법의 전력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도서지역은 독특한 자연환경과 해수욕장, 바다낚시터 등 친해의 관광여건을 갖추고 있어 다도해나 한려해상에 위치한 도서 등은 관광산업이 주요산업이지만 문제는 대부분이 한계절형이라는 데 있다.

도서관광진흥의 현안과제는 전천후 관광지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광역관광루트의 형성과 각개 도서의 특성을 살린 관광시설의 정비, 지역산물을 이용한 토산품이나 향토음식의 개

발, 관광농원의 조성등 다양하고 고도화된 관광수요에 대응하여 언제나 찾고싶은 매력있고 내용있는 관광지 조성에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 국토발전과 재해방지

도서는 일반적으로 산이 많고 경지가 적은 급경사지로 되어 있으며 집락의 대부분이 급경사인 산을 배경으로 해안선연안에 근접한 경지 등에 위치하여 강우·태풍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다.

지금까지 도서종합개발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관심과 투자가 저조하였으나 앞으로는 재해의 미연방지와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치산·치수 및 해안보전시설의 보완·정비등 필요한 대책을 전향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환경개선 및 문화복지의 향상

도서가 머물러 살고싶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매력있는 정주공간이 되자면 기본적인 생활수요의 해결과 지역산업의 진흥외에도 주택·교통·문화·의료등의 양적·질적확충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한 앞으로의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공적주택건설을 촉진하고 불량·노후주택 개량사업을 활성화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해마다 증가경향에 있는 폐기물과 하수도

등 생활환경악화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부분의 정비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생활권역을 고려한 중·고등학교의 병설운영, 교육여건이 좋은 모도나 해안도시의 학교에 기숙사설립 확대 등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가능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도서의 사회문화향상을 위한 주민의 자주적 활동을 활성화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사회교육, 사회문화활동이 활기차게 전개되도록 도서관, 향토박물관 등과 체육시설의 정비 및 각종 오락시설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육지부와 일체화된 구급의료료 확보하여 안정적 의료수혜를 갖도록 관계의료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헬리콥터·환자수송선 등의 긴급수송체제의 정비 등을 촉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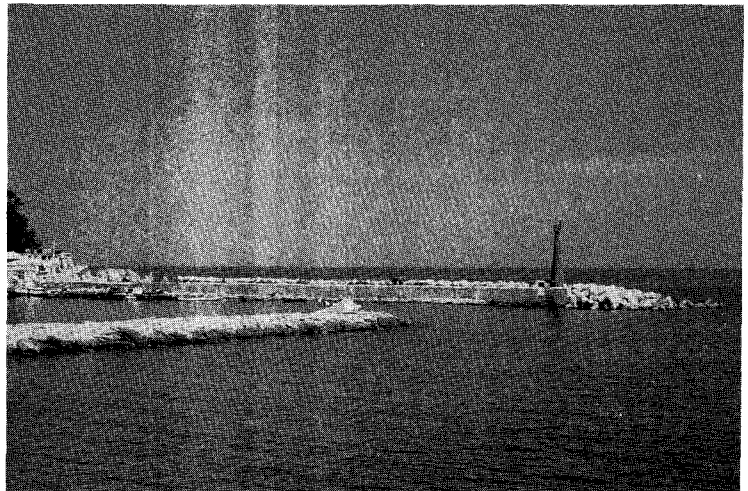
고립된 도서중 대형도서에 있어서는 종합병원 등의 시설과 설비확충을 적극 도모하고 소형도서는 가능한 한 도서내에 기초의료시설의 확보에 힘써 나가 의료진의 파견 또는 정기적인 순회진료와 공중보건의 배치 등 유효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맺는 말

이상에서 도서개발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의 과제 및 대응방향을 살펴 보았다.

요컨대 도서개발의 목표는 도서의 특수사정에 의한 제약요건을 개선하고 풍요롭고 탈력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며 각개 도서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산업의 진흥과 생활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도서지역을 매력있는 정주공간으로 만드는 데 있다.



우리는 과거 여러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도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도서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통일되고 일관성있는 개발전략없이 단편적인 시각에서 개발에 임해 온 결과 애써 마련한 정책이 수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효과가 의도했던 방향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에서 정부에서는 늦게나마 도서종합개발 10개

년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음을 매우 적절한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앞으로의 도서개발은 지방자치체의 실시,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적인 환경 등으로 여건과 전망이 크게 호전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난 60년대 이래의 집적의 이익에 치

중한 거점개발방식에서 비롯된 국토개발의 불균형과 폐쇄를 시정하고 국토 전체의 조화있는 발전을 위하여 산간오지, 도서·낙도 등 이른바 낙후지역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일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와 지원에 앞서 당해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의 애향·자조·자립의식의 발양과 실천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㉔